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

문화향기

이미경

사)맥지청소년
사회교육원 원장



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단순 투약사범이지만 최근에는 유통 등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필로폰, 대마초 외에도 다양한 신종 합성 마약들이 등장해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접하게 되고 있다. 이런 마약들은 주로 청소년 전용, 안전한 약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함께 유통돼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또래의 압력, 호기심 등이 청소년 마약 사용의 주요 동기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일탈 행위의 일환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 또한 많다고 한다. 청소년이 마약을 접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학업 성취와 인지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마약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상실시키고 사고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마약은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고 우울감과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발달 단계인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조절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현실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약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중독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실제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실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다. 얼마 전에 변호사를 초대에 쉽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실제 마약의 모양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 및 SNS를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거라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온라인 마약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설마 하는 사이에 씻을 수 없는 범죄에 연루되고 중독돼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또한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학교, 경찰, 부모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행위로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과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예방, 교육, 치료, 법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

다. 영화에서나 봐 왔던 마약중독자들의 기괴한 행동들이 일상을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부터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하겠다.

여름이 가려나 했는데 한 낮에는 아직도 햇볕이 뜨겁다.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송정역에 모여들었다. '마약, 절대 호기심으로 안돼요. 마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켜주세요'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홍보용 물티슈를 행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와 광주지방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힘을 모았다.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해주면서 마음을 함께 해주는 시민들과 학생들, 어르신 모두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마약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차시는 어떤 어르신은 "중별로 다스려야 안하제"하면서 역정을 내셨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도 "텔레그램이나 해외직구로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마약범죄가 늘어난 것

社說

협동조합 가치 저버린 농·축협 금융사고

자정 위한 특단의 대책 내놔야

지난 5년간 광주·전남지역 농·축협에서 115억 원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회수율도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의식이 부족한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윤리경영마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일함에 이미 익숙해진 듯 무기력에 빠진 농·축협의 각성을 촉구한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용 의원이 공개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남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68억 원으로 이중 22%에 해당하는 15억 원 만이 조합에 회수됐다. 같은 기간 광주 소재 농·축협에서는 57억 원 상당의 금융 사고가 발생해 12억 원 만 회수됐다. 회수율로는 22%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 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적 금전대출 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의 순이었다.

농협에서 일어난 금융사고는 올해만 벌써 4번째다. 지난 달에는 횡령으로 의심되는 1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해 연루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회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농·축협의 손실은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객 돈 수밖에 없다. 안일함에 이미 익숙해진 듯 무기력에 빠진 농·축협의 각성을 촉구한다.

농·축협은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자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농업과 축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해야 할 농·축협이 일부의 일탈로 전체가 비난 받아서는 안된다. 횡령 등을 저지른 직원을 엄중 징계하고 변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회수율도 높여야 한다. 농·축협의 도덕성 회복은 단순히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잡은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 시급하다

정확한 노선관리 등 마련해야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 7개월간 광주에선 47건의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지반 침하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 29건 △도로 다짐(퇴폐우기) 불량 10건 △기타 4건 △기타 매설물 손상 3건 △굴착공사 부실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 지난 4월 17일 광양시의 한 도로에서 지름 약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 발생에는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을 통해 물이 새 토사가 유실되면서 지반침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싱크홀은 주로 상하수도관이 많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 발생이 잦다. 특히 광주시는 노후화된 관의 비율이 높아 관과 관을 연결하는 수도관이거나 90도로 꺾이는 부분

에서 충격을 받기 쉬운데 이때 하수관이 손상되면 지하수로 흘러간 물이 점차 늘어나 관 주변의 흙이 녹아 지면을 지탱할 힘이 사라진다.

매년 지속되는 지반침하에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어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잦은 지반침하 발생을 막기 위해 해선 노후 상하수도의 누수율에 따라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상수도관에 따라 내구연한이 20년 이거나 30년일 수도 있어 교체 기준도 제각각이다. 광주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보다는 설계 작업이 오래전에 이뤄진 동구 등 구도심 주택단지가 특히 지반침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한다.

아직 누수율이 어느 정도이면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미 손상된 후에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지반침하 발생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땅속에 묻힌 상하수도 노선 설계도면을 전산화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노선관리가 필요하다. 또 노후 관로 교체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

서석대

프로야구 1위 팀인 KIA 타이거즈가 우승 확정 매직넘버를 '12' (9월 2일 기준)로 줄였다. 잔여 시즌 18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큰 변수만 없다면 정규리그 우승이 눈앞이다.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도 거머질 것으로 기대된다.

KIA 타이거즈는 시즌 초반을 제외하고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았다. 1위 굳히기의 비결이라면 다른 팀은 몰라도 2위 팀은 확실히 잡고 또 잡아서다.

KIA는 올해 1위를 달리고 있을 때 2위 팀을 만난 18경기에서 16승2패로 무려 8할대(0.889) 승률을 자랑한다. 2위 팀인 KIA를 만날 때마다 패하자 '호랑이 꼬리 잡기의 저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시즌 초반 1경기 차이로 KIA 타이거즈를 뒤쫓던 2위 NC는 1위를 넘봤지만 희망은 희망으로 끝났다. 이어 2위에 등극했던 두산, LG, 삼성도 줄줄이 호랑이 꼬리 잡기의 저주를 당했다. 특히 연승을 이어가던 삼성은 시즌 막판 마지막 1위 역전 기회가 있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2연전에서 4.5경기 차 2위였던 삼성이 호랑이 꼬리 잡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구 원정에서 KIA는 2경기 모두 역전승으로 장식하며 격차를 6.5경기로 벌렸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이 어느 때보

호랑이 꼬리 잡기 저주

다 극심하다. 1위 KIA는 7-8위 롯데(5승7패1무), SSG(6승9패) 상대로 열세를 보였다. 하지만 1위 등극을 노리던 2위 팀들의 꿈을 깨며 1위를 굳혔다. KIA 꼬리를 잡으려다 놓친 2위 팀들이 그 이후 하나같이 성적이 급락했다. 정말 저주가 현실이 된 것이다. 강팀에 강한 기아의 화끈한 경기력에 기아팬들은 열광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 개장 후 최다 매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광주 챔피언스필드는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관중 100만215명을 기록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구 구단다운 KIA 타이거즈의 면모다. '도니살'(도영아 니 따시 살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김도영, 양현종, 최형우 등은 기록잔치를 펼치며 팬들을 환호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력에 비상이 켜졌다. 외국인 선발투수 제임스 네일의 부상 등으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하지만 KIA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에 11회 진출해 11회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호랑이 꼬리 잡기 저주까지 더해진 KIA 타이거즈의 'V12'는 결코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